

지역 소식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되는 노력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계속 복음 안에서 강화되고 있을까?



가운데 사진: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 새로운 시작 활동, 둘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 경진 퀴즈 장면
나머지 사진들: 일산 와드 청년들이 온라인 활동에서 만든 청년 주제 작성, 베이킹, 팝 아트, 크리스마스 리스 등.

지난 2019년 10월,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발표하며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청소년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 사항, 쿠엔틴 엘 쿡, 2019년 10월 연차대회) 얼마 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청소년 활동이 축소 혹은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국의 감독단과 청소년 역원들은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청소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이 성약의 길 위에서 굳건히 서도록 도왔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이끌다: 온라인 청소년 위원회 모임

2019년에 발표된 변경 사항에 따라 기존의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은 와드 청소년 위원회 모임으로 대체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와드 청소년 위원회의 모임 장소는 온라인으로 옮겨졌지만, 청소년들은 와드 청소년 위원회 모임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영감을 구하며, 청소년 활동 모임 등에 관해 논의했다.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는 2020년 12월, 온라인 와드 청소년 위원회 모임을 처음으로 가졌다. 감독단, 청년 회장, 각 정위원회 및 청년 반 대표는 줌(zoom)으로 만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와드에서 청소년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토론했다.

총장 와드 이준용 감독은 “대면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청소년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데, 청소년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청소년 위원회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 사항을 알아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서로 성약을 베풀고 우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총장 와드에서는 향후 매달 청소년 위원회를 열고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경기 스테이크 역시 지난 2020년에 분기마다 스테이크 아론 신권-청녀 위원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6월, 11월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위원회를 소집했다. 위원장인 경기 스테이크 회장단 2보좌 이해택 회장은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원활한 토론이 가능할지 걱정되었습니다. 막상 모임을 해 보니, 온라인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면 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테이크 청소년 활동을 함께 계획했으며, 다른 청소년이 신앙의 자립을 이루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등을 논의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모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도 청소년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준비된 영임을 인식하고, 믿어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위대한 대업에서 한 축을 맡는 유능한 존재로서, 주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왼쪽 편지 봉투 사진: 서울 스테이크에서 청소년 대회를 위해 각 청소년의 가정으로 보낸 꾸러미 박스. 각 활동별 주제, 설명 및 준비물이 들어있다.

나머지 사진: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활동에서 만든 작품들. 팔찌는 기부될 예정이다.(기사 본문 참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다: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활동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대면 모임처럼 흥미롭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 직원들은 잘 준비된 다양한 활동으로 대면 모임만큼이나 즐거운 온라인 모임을 이끌었다.

2021년 1월 23~24일 이틀간,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위대한 일(교리와 성약 64:33~34)”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청소년 대회가 열렸다. 청소년들은 각자 가정에서 줌을 통해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는 이틀 동안 오전, 오후, 저녁 2시간씩 총 다섯 번의 활동 모임과 일요일 오전의 청소년 특별 성찬식으로 구성되었다.

사전에 활동 주제와 설명이 적힌 봉투와 준비물이 든 꾸러미 박스가 각 청소년의 가정으로 배송되었다. 70여 명의 청소년은 가족을 위해 떡국 끓이기, 장애 아동을 위한 기부 팔찌 만들기, 성전 모형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에 마치 실제로 함께 모인 듯 서로 소통하며 즐겁게 참여했다.

한편,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청년회는 2020년 9월부터 한 달에 3회, 토요일마다 청년 활동을 하고 있으며, 6~8명 정도의 청년이 꾸준히 참석한다. 청년 회장인 이은혜 자매는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네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온라인 활동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신체적 영역을 발달시키기 위한 요가 배우기, 영적인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청년 주제 꾸미고 외우기 활동, 그 외에 유화 그리기, 인형 만들기, 베이킹 등이 특히 호응을 얻었다. 물론 이 모든 활동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매는 온라인상에서 청년들이 자주 소통하면서 예전보다 더 친해졌다고 한다. “청년들이 매주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서로 발전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 스테이크 수지 와드의 오미화 청년 회장은 지난 11월, 청년 활동을 온라인으로 하자고 처음 제안했을 때 달가워하지

않던 청년들의 반응을 떠올렸다. “학교 수업, 세미나리, 교회 공과도 온라인으로 하는 중인데, 청년 활동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온라인 방식에 대한 피로도는 이해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다소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몇몇 청년들을 설득한 끝에 온라인 청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현재는 한 달에 2회, 활동 청년들의 90%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교회로 오가는 시간이 절약되자 50~60% 정도의 참석률을 보였던 대면 청년 활동 때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게 된 것이다.

오 자매는 “온라인 모임에서도 청년들이 직접 활동과 공과를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들이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 스테이크는 2020년 10월의 게임 활동을 시작으로 12월 송년모임 및 경전 퀴즈 대회, 2021년 1월의 새로운 시작 활동 등 꾸준히 온라인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다. 스테이크 청년 회장 안인영 자매는 “10월이 되어서야 첫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겪는 상황에 실수도 많았고 청소년들의 호응도 크지 않았습니다.”라고 회상한다. 첫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청소년 직원들은 이후 모임을 준비하며 여러 번 예행연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광고도 하고 참여를 권유했다. 결과적으로 12월 온라인 모임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안 자매는 최근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을 만나며 그들이 얼마나 굳건하고 훌륭한 영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까웠던 마음을 보상받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갈 수 없었던 기간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온라인 세미나리, 아론 신권회와 청년회 등에 참석하며 얼마나 충실히 개인적인 신앙을 지켜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위대한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님의 청소년 대대입니다.’(이스라엘 시온 군대, 러셀 엠 넬슨 회장, 넬슨 회장 부부와 함께 하는 전 세계 영적 모임 참조) ■

비대면 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지만, 변화된 상황에서도 전국의 성도들은 구주의 모범을 따라 한결같이 성역을 베풀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의 성역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침 레반은 지 오래 되지 않아 교회와 멀어졌던 최 자매(익명)는 최근 개인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다시 기도로 주님을 찾았고 교회에 다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다. 많은 고민과 결심 끝에 교회에 가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탈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같은 와드의 신 자매(익명)는 오랜만에 최 자매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 자매가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온라인 성찬식 링크는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갑자기 연락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느낌대로 온라인 성찬식 방송 링크를 보냈다.

최 자매는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성찬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온라인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최 자매는 이렇게 전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신 자매님의 성역을 통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회원들의 관심과 성역 덕분에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들

비회원인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역을 베풀고자 했던 김 자매(익명)는,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 성도 광장’에서 마음에 드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다 읽고 나서 창을 닫으려는 순간, 게시글 마지막에 “복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선교사들에게 연락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았다.

그는 ‘이 “관심 있으신 분”이 우리 언니일 수도 있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 게시글의 링크를 언니에게 공유했다. 그리고 이후 전화를 걸어 “언니, 우리 교회 선교사들 만나볼래?”라고 묻자, 전화기 너머로 “좋아.”라는 대답이 들렸다. 그의 언니는 선교사와 만나기 시작했다. “10여 년 동안 소망하던 일이 이 코로나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언니의 선택에 따라 또 다른 1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코로나 기간에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스테이크 내에 재능이 있는 자매들을 주축으로 단체 메신저 대화방을 열었다.

평일에는 온라인 ‘10분 운동방’을, 또한 주말에는 고민이나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토론방’도 열었다. 단순한 도구일지 모르지만 스테이크 내 자매들이 서로 연결되어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상호부조회 회장 김혜경 자매는, “성역을 베푸는 모든 일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며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면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어느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분을 위해서라도 모임을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라고 전했다. 이 단체 메신저 대화방은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에게 작은 활력과 기쁨의 시간이 되었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았던 회원들과도 이곳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할 수 있었다.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될 때

강북2 와드 감독단은 성역의 일환으로 한 연로한 회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면적이 약한 어르신은 방문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코로나19 사태 중 소외되고 있을 어르신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서울 동 스테이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역을 강화하는 데 더 힘쓰고 있었다. 이들은 방역 지침을 특별히 신경쓰는 가운데 그 장년 회원의 집으로 갔다.

감독단이 방문하자 장년 회원은 소중히 보관했던 십일조 봉투를 내밀었다. 그는 부업으로 돈을 벌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했지만, 다리미로 지폐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레 다리며 주님의 돈을 보관해 왔다. 교회가 폐쇄되었고, 계좌 이체를 하는 것도 그에게는 번거로운 일이었기에 십일조를 낼 수 있는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연로한 회원이 보여 주신 신앙은 감독단과 성도들에게 큰 모범과 인도가 되었다. 강북2 와드 감독단은 이렇게 전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적으로 강화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

새로 부름받은 서울 선교부 회장 부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 중인 배동철 장로와 그의 아내 박순병 자매가 오는 7월부터 한국 서울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배 장로 부부는 청년 시절에 침례받을 때부터 오랫동안 서울 선교부 지역에서 복음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추억과 애정이 깃든 곳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음에 기쁨과 놀라움을 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리적 제약으로 선교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배동철 장로는 오히려 기대가 된다며 큰 확신으로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작금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신성한 설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의해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두셨으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교리와 성약 138:56 참조) 그분의 방법대로 함께 일하길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 즉 이스라엘의 집합을 위한 방편을 시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기술이 발전되었기에 온라인을 통한 선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 사업의 책임을 장로정원회, 상호부조회, 청소년에게 각각 주셨지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회원과 선교사가 그분을 신뢰하고 함께 나아가며 일할 때 주님의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러셀 엠 넬슨 회장, 2018년 선교부 지도자 세미나 참고)

배동철 장로는 서울 스테이크 회장, 한국 홍보위원회 회장, 지역 칠십인 등으로 섬 없이 봉사해왔으며 박순병 자매 또한 이런 남편의 봉사를 힘껏 지원해 왔다. 배 장로는 이토록 큰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주님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라며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다. “그분의 속죄와 희생에 대해 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는 자연히 저도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명하십시오. 제가 가서 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위해 봉사했지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주님께 받은 축복 앞에서 저희의 봉사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배 장로 부부는 성도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매일 작은 선한 일을 하는 데 부지런해집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회원들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구원 사업에 있어 늘 선교사와 함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를 때, 즉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을 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주어질 것입니다.(모로나이서 7:48 참조) 그분의 인도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실천할 때 넬슨 회장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배동철 장로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또 이베이 코리아 상무, 스카이프 총괄, 새턴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지냈다. 박순병 자매는 한국 관리본부에서 일했으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스테이크 청년 회장 등으로 봉사했다. 배 장로 부부는 각각 다른 시기에 부산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배 장로와 박 자매는 종교교육원에서 우정을 쌓았고 배 장로가 군 제대 후 대학교 2학년일 때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었다.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 3명



강필립 장로
경기 스테이크
신갈 와드
부산 선교부



정시온 자매
청주 스테이크
충주 와드
부산 선교부



최정훈 장로
청주 스테이크
충주 와드
부산 선교부

정정합니다

지역 소식 2월호 13쪽에 게재된 기사, “연말 연시 봉사 프로젝트: 작은 도움의 손길들”에서, 박인규 형제님이 공주 와드 감독으로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